

환경윤리

03. 동물, 생태, 사회



I 동물과 생명: 동물윤리와 생명중심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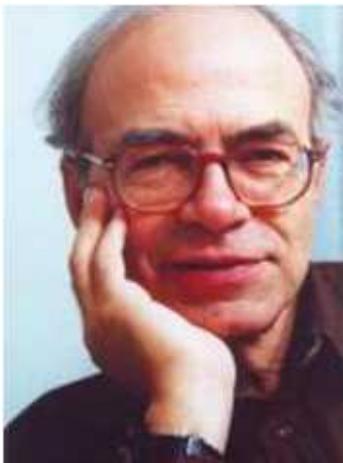
1. 동물윤리의 이념

동물들이, 폭군이 아닌 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이성의 능력인가 아니면 대화하는 능력인가? 하지만 완전히 자란 말이나 개는 하루나 일주일이나 한 달이 된 유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더 잘 통하고, 더 합리적인 동물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인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성을 갖는가, 그들이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겪는가이다.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1) 오늘날의 동물윤리(animal ethics)는 1970년대 초반 ‘옥스퍼드 그룹’ 이라고 알려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과 대학원생들에서 시작되었다. 이들 대학원생들이 동물의 권리와 관련된 철학적 논쟁을 주고받은 것이 시초가 된다. 이때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은 공리주의자 창시자인 벤담의 동물권에 대한 논의이다.

2) 동물윤리의 대표자는 싱어(Peter Singer)이다. 싱어는 1975년 『동물해방』을 발표하는데, 이 책은 오늘날 동물해방운동의 바이블로 여겨진다. 싱어는 공리주의에 기초하여, 중요한 것은 고통의 방지와 쾌락의 증진인데, 그렇다면 인간의 행복과 고통뿐만 아니라 동물의 그것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쾌락만 증진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성차별주의와 인종차별주의가 잘못된 것이라면, 종(種)차별주의도 잘못된 것이다. 즉 남성이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에서 여자에 대한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백인이 단지 백인이라는 이유에서 흑인에 대한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듯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동물에 대한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싱어)



2. 공장식 사육과 동물실험

1) 싱어는 현재 동물들에 대한 관행은 인간중심주의라는 통념에 기초하며, 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현재의 관행, 즉 우리의 식생활, 동물들의 사육방식, 과학의 실험 절차, 사냥, 함정, 모피, 그리고 서커스, 로데오, 동물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공장식 사육'(factory farming)이다. 공장식 사육이란 자연 상태에서 가축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장에서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때 소, 돼지, 닭 등 사육동물들은 좁은 공간에 갇혀 자연이 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싼 가격에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삶을 산다.

3) 이 과정에서 동물들이 느끼는 고통은 엄청나다. 특히 미식가들의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 좁은 우리에서 빈혈로 키워지는 비일 송아지,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좁은 우리에 갇혀 평생 새끼들만을 생산하는 씨돼지, 그리고 배터리라고 불리는 좁은 축사에 갇혀 부리를 제거당하는 닭들이 느끼는 고통이 심각하다.



4) 공장식 사육은 동물의 고통을 야기하는 것 이외에 다음의 문제를 낳는다. 첫째,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파괴를 낳는다. 가축의 사료인 옥수수를 생산하기 위해 막대한 농경지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된 옥수수 중 절반 이상이 가축 사료로 소비되고 있다. 브라



질의 아마존 정글도 주로 이런 이유에서 파괴된다.

둘째, 세계 기아 문제를 낳는다. 소가 먹어 치우는 곡물은 전 세계 곡물 중 1/3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 굶주리는 사람이 8억 5천만이다,

셋째, 건강상의 문제를 낳는다. 지나친 육식은 어린이 비만과 성인 당뇨를 유발한다. 그리고 좁은 곳에서 많은 가축들이 살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워 항생제를 투여해 이를 막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인간이 먹게 된다.

5) 현재 공장식 사육은 여기저기서 불법화되고 있다. 1991년 말 스위스에서는 배터리 닭장에서 산란 닭을 사육하는 방식이 불법화되었다. 그리고 1990년 영국에서는 비일 송아지 사육이 금지되었고, 현재는 유럽연합 전체에서 금지되었다. 미국은 2015년부터 여러 주에서 송아지와 암탉이 우리가 금지되고, 배터리 닭장도 불법이 된다.

6)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물운동단체의 활약으로 2000년 초반 동물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2007년에 대폭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생명으로서의 동물의 가치를 인정한 동시에, 동물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규정인 동물실험위원회의 설치 및 동물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사항을 담고 있다.

3. 생명주의의 이념과 실천

1) 생명주의를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은 슈바이처(A. Schweitzer)와 간디(M. Gandhi)이다. 슈바이처는 생명경외를 주장하면서 전염병을 죽이는 모기마저도 죽이기를 꺼려했다고 한다. 또한 간디는 자기도 모르게 곤충을 밟아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 야간에 외출하는 것을 꺼렸다고 한다.



(슈바이처)



(간디)

2) 생명의 가치를 잘 설명한 것은 테일러(Paul Taylor)의 생명중심주의이다. 그것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생명체는 '목표지향적 삶의 중심' (teleological center of life)이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체는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종을 재생산하려는 목표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부단히 적응하려고 애쓰는 존재이다. 그는 이런 생명체의 '내재적'(inherent)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생명의 소중함을 학계에 확산시킨 사람은 근본생태주의(deep ecology)의 원조 네스(Arne Naess)이다. 그는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를 실현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생명평등주의’를 제창한다. 그리고 이런 생명평등주의의 실천은 ‘큰자아실현’이라는 윤리적 강령의 실행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큰자아(Self)’를 추구한다는 것은 ‘협소한 자아(self)’를 넘어 ‘자연과 나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자연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깨닫는 것이다.

4) 그런데 생명평등주의(또는 생명중심주의)는 실천가능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동물해방론은 육식을 금지하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생명평등주의는 이 정도의 부담이 아니라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론일 수 있다. 즉 생명평등주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인간에게 부여한 가치와 유사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런 가치를 지닌 존재를 먹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생명평등주의에 충실하다보면 우리 인간은 자연과정에서 이미 죽은 생명체, 가령 ‘낙엽’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5) 네스나 테일러의 대안은 본질적(basic) 필요와 부수적(nonbasic) 필요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의식주를 위해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본질적 필요에 해당하지만, 핸드백처럼 없어도 되는 것을 충당하기 위해 희귀종인 악어를 사냥하는 것은 부수적 필요에 해당한다. 본질적 필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부수적 필요를 위해 동물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II 생태와 사회: 생태중심주의와 사회생태주의

1. 생태중심주의

<사례> 코끼리 제거작업

동아프리카의 야생 생물 보호구역에는 코끼리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 코끼리들이 나무껍질까지 다 먹어치워 나무가 고사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생태계 파괴는 더 심각해지고 코끼리들도 결국 굶어 죽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인위적으로 코끼리를 선별해 죽이는 것이다.

1) 동물윤리 및 생명중심주의의 문제점은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생태계에서 특정 개체수의 과잉은 생태계 전체의 피폐화를 초래하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령 코끼리 개체수가 과잉인 지역에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코끼리를 죽이거나 불임수술 해야 한다. 또 황소개구리 같은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외래종을 죽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동물윤리와 생명평등주의는 이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코끼리나 황소개구리도 토종 개구리와 똑같이 귀중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2)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레오폴드(A. Leopold)와 캘리코트(J. B. Callicott)의 대지윤리(land ethics)이다. 대지윤리는 생태중심주의(또는 생태주의)로 이것에 따르면, 윤리학의 고려대

상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로 확대되어야 하며, “개별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생태계의 온전함과 안정, 아름다움에 얼마나 이바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3) 생태중심주의(또는 생태주의)의 강점은 실천가능성과 관련해 생명주의의 약점을 해결하면서,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생태계의 안정이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황소개구리와 코끼리에 대한 정리 작업을 전체 생태계의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2. 생태사회주의

1) 환경 문제를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환경문제는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회’라는 매개 고리를 통해 해명될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대표는 북친(Murray Bookchin)의 사회생태주의(social ecology)이다. 북친이 보기에 생태주의(네스의 근본생태주의와 캘리코트의 대지윤리)는 환경문제의 원인을 인간중심주의로 귀착시키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환경위기의 원인을 인간중심주의로 본다면,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환경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환경파괴 기업의 악덕사장이나, 가난한 빈민가의 아이에 동일한 책임을 전가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2) 생태주의는 야생지 보전운동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는 국립공원을 설치하고, 늑대, 회색곰, 엘크의 보금자리를 위해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은 미국 서부와 캐나다, 호주, 스칸디나비아 등 일부 지역에 불과하다. 이들 지역은 야생지를 갖고 있고, 또 야생지를 남겨둘 수 있을 정도로 인구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야생지 보전운동은 한계가 있다.

3) 북친에 따르면, 환경문제는 사회문제라는 광범위한 문제의 하나일 뿐이다. 그는 사회문제의 원인을 지배(domination)와 위계(hierarchy)에서 찾는다.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지배와 위계가 갖가지 문제를 낳았는데, 환경문제도 이것의 일환이다. 남성의 여성 지배, 이성의 남성 지배, 정신의 육체 지배, 자본가의 노동자 지배, 도시의 농촌 지배, 노인의 젊은이 지배, 인간의 자연 지배가 그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극복은 사회에 만연한 지배와 위계관계를 깨고,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전체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된다.

4) 환경문제를 사회정의의 문제와 연관시켜 보는 흐름이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환경문제는 인종간 계급간 정의(正義)와 분리될 수 없다. 미국에서 유독성 폐기물이 폐기된 장소는 백인거주 지역이 아니라 흑인거주지역이며,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노동자의 거주지역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된다

5) 경제 사정이 어려운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야생자연의 보전보다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여기서 환경운동은 주거, 식량, 고용, 안전한 노동환경, 보건 등 인간의 생존 문제와 연결된다. 대표적인 예가 인도에서 발생한 ‘칩코 운동’이다. 칩코운동에서는 여성이 주축이 된 지역주민들이 벌목회사에 대항해 싸웠다. 이 지역에서 숲은 오랜 기간 주민들에게 떨감을 제공했고, 또 버섯채취는 주요 수입원이었다. 그런데 다국적 대기업이 들어와 대량벌목을 하자



여성들이 나무를 꺾어내고 이에 항거한 것이다. 이것은 환경운동은 가진 자의 운동이라는 사회통념을 깬 것이었다.



III 채식주의의 논쟁과 음식윤리

<사례> 채식주의의 논쟁

동물윤리와 생태주의는 공통점이 많지만 차이점도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채식문제와 관련해 발생한다. 싱어 같은 동물윤리학자들은 채식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면 생태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생태주의자들은 방목형이고 유기농이면 육식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1) 생태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지속가능성이고, 유기농이나 적정 형태의 사냥은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운동 진영에서 공장식 사육에 반대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공장식 사육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르다. 동물운동의 경우 공장식 사육이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반대하지만, 환경운동은 공장식 사육이 환경과 파괴를 낳기 때문에 반대한다. 환경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공장식 사육은 동물들에게 제공되는 사료인 옥수수 생산하기 위해 야생지역을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2) 생태주의자들은 공장식 사육에 대한 대안으로 유기농 사육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닭, 소, 칠면조, 돼지 등의 동물과 토마토, 딸기, 건초 등을 함께 키우는 방안을 모색한다. 물론 이곳의 동물들도 종국에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먹히는 비극을 경험하겠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은 고통 없이 자연이 자기에게 준 본성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배설하는 똥은 같이 키워지는 식물들을 살찌우고, 생태계를 윤기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단일경작으로 피폐해진 생태계와 지구를 살리는 길인 것이다.

3) 최근의 추세는 동물윤리와 생태주의, 그리고 동물운동과 환경운동은 서로 공통의 관심사를 추구하고 행동에서 보조를 맞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사냥에 대해서 생태주의 진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간들은 크고 강한 동물을 사냥의 표적으로 삼는데, 이것은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우, 밍크, 표범 등 멸종동물 보호운동에 행동을 같이



했다. 또 최근 북부 캘리포니아의 삼림개간사업에 환경운동진영과 동물운동 진영은 연대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숲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이 사업을 반대했고, 동물운동가들은 개간사업으로 인해 강이 오염되면 연어가 위태롭다고 보았기 때문에 반대했다.

1. 로컬 푸드

1) 우리의 먹거리는 많은 경우 외국에서 온다. 가령 숙주나무 같은 농산물은 중국,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필리핀, 견과류와 오렌지는 미국, 키위는 뉴질랜드에서 온다. 조기와 낙지는 중국, 새우는 태국, 홍어는 칠레, 연어는 노르웨이에서 온다. 그리고 쇠고기는 호주, 베이컨은 덴마크에서 온다. 온 거리를 계산하면, 숙주나물(중국)은 907km, 연어(노르웨이)는 8180km, 쇠고기(호주)는 8283km, 오렌지(미국)는 9549km, 홍어(칠레)는 20362km이다.

2) 이것은 수송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를 야기한다고 비판된다. 그리고 식량자급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쌀은 자급자족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3) 로컬 푸드(local food) 운동은 말 그대로 가까운 지역의 음식을 소비하자는 운동이다. 이런 먹거리는 신선하기도 하고, 먹거리의 생산과 운송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도 줄어 든다. 또 어린이들은 먹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가까운 곳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생태체험의 기회를 얻게 된다.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 다시 그 지역 안에서 순환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낸다.

4) 로컬 푸드 운동은 유기농 운동과 결합되기도 한다. 지역의 회원 농민들이 생산한 유기 농산물을 매장 판매나 가정 배송 형태로 도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 받고,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유기 농산물을 공급 받는다.

2. 공정무역

1) 커피와 카카오: 커피는 전 세계에서 하루에 25억 잔 소비된다. 우리나라에 커피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베트남으로, 전체 수입의 40%를 점한다. 커피 재배농민은 원두 1킬로그램을 1~2달러 남짓에 파는데, 이 양으로 커피를 200잔 만들어 팔 수 있다.

카카오는 초콜릿의 원료로, 초콜릿은 발렌타인데이의 연인들의 선물이다.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카카오 공급량의 40%, 인근 나라인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까지 합하면 전 세계 2/3를 공급한다. 그런데 천 원짜리 초콜릿 중에서 카카오 농민에게 돌아가는 돈은 20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돈의 대다수는 카카오의 생산, 유통, 가공, 초콜릿 판매를 장악한 다국적 기업에 돌아간다.



2) 그러다보니 카카오 농장에서는 어린이 노동자를 선호한다. 이는 어린이들의 임금이 싸고 만만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서 25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아프리카 열대에서 혹사당한다고 있다.

3) 공정무역운동은 선진국 소비자와 제 3세계 생산자의 새로운 관계 맺기 운동이다. 가령 필리핀에서 유기 농법으로 생산된 설탕, 팔레스타인 소농들이 생산한 올리브유, 네팔과 동티모르에서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커피가 공정무역운동을 통해 생활협동조합에서 판매되고 있다.

4) 음식윤리(food ethics)는 음식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분야이다. 여기서 전제하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이 나이다”(I am what I eat)라는 것이다. 내가 먹는 것이 나의 육체를 규정하고, 나의 정신,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도 규정한다고 본다. 음식윤리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서 동물의 고통과 아울러 제 3세계 빈민의 문제도 고민한다.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생태주의의 강령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